



Ostern 2020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제가 바이에른 주에 사는 모든 개신교 루터 교회 교우들에게 부활절 편지를 감히 이런 호칭으로 시작할 때는, 올 해 부활절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서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 이것이 우리가 매년 부활절 오늘 서로 크게 외쳤던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좋아하는 말을 교회에서 성대한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특히 상처 입기 쉬운 다른 사람들의 몸과 삶에 위험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메시지를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절 기쁨은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 그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활절을 힘차게 맛 보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나라 어디에서나 창조적인 다양한 의사소통 가능성을 경험하고, 다양한 교제 가능성, 그리고 전염의 위험성이 없는 예배 공동체의 가능성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활절 메시지가 바로 지금 그런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커다란 두려움, 또는 경제적으로 존폐의 위기를 겪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금요일이 없다면 부활절은 없습니다. 부활절 기쁨은 삶에 담긴 고통이나 고난을 그저 몇 일동안 잊게 해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부활절 기쁨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또한 그러한 것들을 이겨 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내게 특별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과 빈 무덤에 관한 혼란스러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하듯이, 그들도 단 둘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 재난 이후, 삶은 이제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옛날 같은 삶이 어찌했든 되돌아오기는 할 것인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삼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마도 접촉제한이라는 규칙을 알지 못하는 듯이 보입니다. 질문을 하고, 말하기 전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나중에 그 두 사람은 그가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알아챱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죽음이라는 최종적 접촉금지로 들어가신 예수께서 살아 계셔서 그들 곁에 계신다.

이 두 제자들처럼 2020년 부활절에 부활하신 분의 현존을 여러 분 가운데에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를 우리 모두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촛불 하나라도 밝히면 그것을 느끼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빛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각을 통해 몸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 간의 모든 접촉제한 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나누는 많은 사랑의 표징들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그리고 나라를 넘어서 서로 나누는 이런 모든 사랑의 표징들이 내 안에서 확신을 불러 일으킵니다. 위기가 극복되면, 우리가 나약해진 모습이 아니라 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 서로 크게 외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Dr. Heinrich Bedford-Strohm
Landesbischof

